

## 기타미시(北見市)와 진주시의 자매결연, 그리고 홋카이도와 경상남도의 농업교류

홋카이도의 북동쪽 지역에 위치한 기타미시는 오토츠크해에 접한 오토츠크 지역의 산업,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경상남도 진주시와는 양 시의 로타리 클럽 간의 교류가 발전되어 1985년 5월에 기타미시의 제1호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적 교류를 통한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1992년에는 진주시 소재의 국립 경상대학교와 기타미 공업대학 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 2002년에는 기타미 시장 외 3명이 진주시를 방문하고, 2007년에는 진주 시장 외 5명이 기타미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방문은 민간 교류로 이어져 2008년에는 기타미 일한친선협회장의 21명이 진주를 방문했고, 2010년 1월에는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기타미 일한친선협회 청소년 한국파견 연수단이 진주시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가졌습니다.

기타미시의 주요 산업으로는 크게 농업, 임업, 관광업,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밭 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농업 식품, 박하, 양파, 목재 등의 가공산업도 함께 발달해 있습니다. 기타미는 양파 생산량이 일본 제1로 국내 양파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품종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져 품질 면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와 홋카이도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농업지역이라는 공통점으로부터 지차단체간 교류의 일환으로 농업 기술자를 상호 파견하여 농업의 현황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과제, 대응 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농업 기술자 교류를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타미시는 빼놓을 수 없는 시찰지로 선정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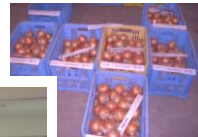
2007년과 2008년에는 경남 농업기술원의 양파 연구소 관계자 분들이 홋카이도를 방문하여 기타미 농업시험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농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경상남도·홋카이도 농업교류 (3년 계획)】

(경상남도 기술자의 홋카이도 방문)		
2008년 10월 14일 ~ 18일	3명	
2007년 10월 29일 ~ 11월 4일	4명	
2006년 10월 23일 ~ 28일	3명	
(홋카이도 기술자의 경상남도 방문)		
2009년 2월 24일 ~ 28일	2명	
2008년 2월 26일 ~ 3월 1일	2명	
2007년 3월 20일 ~ 24일	2명	

3년 계획으로 진행된 상호 농업 교류는 2008년도 파견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후로도 자율적 교류로 이어져 2009년 9월에는 경상남도에서 양파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외 관계 공무원 21명이 기타미의 연구소와 농협, 양파 수확현장 등을 방문해 양파 재배 기술과 수확의 기계화와 관련해 열띤 토의를 펼쳤습니다.

기타미시 HP (일본어·영어)  
[www.city.kitami.lg.jp](http://www.city.kitami.lg.jp)



(사진)  
위: 기타미에서 품종개발된 양파  
좌: 기타미 농업 시험장에서 연수를 받는 경남 농업 방문단



## 자연의 보고, 지구 온난화 탐지기 아바시리시(網走市)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자연의 은총을 받은 아바시리시는 봄에는 신록의 초록으로 물들고, 여름에는 알록달록 꽃들이 다투어 피어 화려한 빛을 띠니다. 가을에는 단풍과 통통마디가 산과 들, 호수 주변 일대마저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해안까지 밀려오는 유빙이 새하얀 은백색 세상을 만들어 냅니다.



노토로코(能取湖) 호반의 통통마디

오토츠크해의 겨울은 바다를 뒤덮는 유빙이 특징적이며, 아바시리시의 해안까지 유빙이 접근합니다. 아바시리시의 관광 명물인 유빙 관광 쇠빙선 '오로라'호는 두께 1미터나 되는 유빙을 호쾌하게 부수면서 돌진합니다. 항해 중 유빙 위에 있는 바다표범이나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대자연의 웅대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운항 기간: 1월 20일~4월)

아바시리를 찾아오는 유빙은 시베리아의 아무르강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의 염도를 낮추면서

만들어집니다. 염도가 낮은 해수층이 얼어 얇은 얼음을 형성하면 이것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점점 커지면서 남하해 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유빙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바시리시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이며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바시리시 HP : [www.city.abashiri.hokkaido.jp](http://www.city.abashiri.hokkaido.jp)  
아바시리 관광협회: [www.abakanko.jp](http://www.abakanko.jp) (한국어)



빙하 밑에 서식하는 클리오네(조개류)



유빙 위의 바다표범



유빙 관광 쇠빙선 '오로라'호



천연기념물 큰독수리 (大鷲)

### 【기타미시와 아바시리시의 이모저모】

#### ◇ 기타미시와 아바시리시의 개요



#### ◆ 기타미시 (北見市)

면적: 1427.56km<sup>2</sup>, 인구: 약 12.6만명(2009년)  
주요산업: 농업, 임업, 관광업, 제당업 등

- 이것이 세계 No. 1
- 박하 생산량
- 카라쿠리 시계탑
- 이것이 일본 No. 1
- 양파 생산량
- 가리비 어획량
- 철죽 군락



가리쿠리 (비둘기) 시계탑

(은네유 은천 철죽 공원)  
·일본 유일의 북방 여우 방목 농장 소재  
기타미 관광협회: [www.kitamikanko.jp](http://www.kitamikanko.jp)



북방 여우

#### ◆ 아바시리시 (網走市)

면적: 471.00m<sup>2</sup>, 인구: 약 3.9만명(2009년)  
주요산업: 농업, 임업, 어업, 관광업 등

이곳에 가보세요!

- 오토츠크 유빙관



오토츠크 유빙관

유빙을 테마로 한 과학관입니다. 실제 유빙을 일년내내 보고, 만질 수 있으며, 영하의 기온에서

비누방울을 불면 어떻게 되는지, 젖은 수건을 빙빙 돌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 박물관 아바시리 감옥



박물관 아바시리 감옥

1984년까지 실제로 사용되었던 아바시리 형무소 옥사를 그대로 이축하여 공개하고 있

니다. 엄동설한으로 탈옥을 방지하고 죄수들을 개혁의 노동력으로 동원하고자 홋카이도에 세워진 감옥입니다.

수많은 온천이 있는 일본에서도 '온천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다채로운 온천이 있는 홋카이도 홋카이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온천을 소개해 드립니다.

온천 백화점 노보리베쓰(登別) 온천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온천으로 꼽히는 노보리베쓰 온천은, '온천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온천의 수질을 자랑합니다. 온천수의 하루 자연 용출량은 1 만톤에 달하고 원천수의 온도는 45 도에서 90 도까지 다양하며, 사시 사철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지옥 계곡(地獄谷)에서는 굽이굽이 흐르는 뽀얀 원천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보리베쓰의 어원은 아이누어의 「누푸루벳=회고 탁한 강=색이 짙은 강」에서 유래했으며, 이곳을 흐르는 강도 「쿠스리산벳=약탕 밀을 흘려 바다로 가는 강」이라 불리며 오랜 옛날부터 이곳의 온천수는 약탕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노보리베쓰에 온천가를 세운 다키토모 긴조(瀧本金藏)는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일본 각지를 순방한 끝에 노보리베쓰의 온천수로 아내의 병을 고치고 이 효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숙소를 세우고 길을 정비해 지금의 노보리베쓰 온천의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노보리베쓰 온천가에 있는 온천 시설에는 여러 종류의 욕조가 있어 이러한 다양한 수질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지옥 계곡



지옥 계곡의 열라대왕



원천수

노보리베쓰 관광협회: [www.noboribetsu-spa.jp](http://www.noboribetsu-spa.jp) (한국어)

유황천(硫黄泉) 온천백화점

유황천(硫黄泉)

대표적인 온천수로 유백색에 삶은 달걀과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총 유황이 온천수 1kg 중 2mg 이상 포함되어 있는 온천을 가리키며, 모세 혈관과 세동맥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줌으로 심장병, 고혈압, 만성 관절염, 피부염 등에 좋습니다.

식염천(食塩泉)

무색투명하게 보이며 바닷물 성분과 비슷한 식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분이 땀의 증발을 막아주어 보온 효과가 높아 목욕 후에도 후끈하게 한기가 잘 들지 않는 온천수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살균력이 강해 아픔을 덜어 주는 진정효과가 있으며, 창상, 화상, 타박상, 부인병, 신경통, 요통, 냉증 등에 좋습니다.

명반천(明礬泉)

무색투명 또는 다소 황갈색의 온천입니다. 알루미늄과 황산이온을 함유하고 있어 결막염 등에 효험이 있어 '목탕(눈에 듣는 탕)'이라 불립니다. 또한 피부와 피부점막을 죄어 주어 미용 효과 외에 만성 피부 질환과 점막염증, 무좀, 두드러기 등에도 좋습니다.

망초천(芒硝泉)

무색투명, 무취이지만 짠맛이 납니다. 나트륨과 황산이온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 고혈압과 외상, 동맥경화 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줌으로 변비, 비만, 당뇨병, 통풍 등에도 좋습니다.

석고천(石膏泉)

석고가 녹아 있는 온천으로 '상처탕(상처에 듣는 탕)' '중풍탕(중풍에 듣는 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진정, 수렴효과가 높아 류머티스, 고혈압, 타박상, 염좌, 화상, 습진 등에 좋습니다.

녹반천(綠礬泉)

철과 구리 등의 광물을 함유하고 있어 공기와 산화해 다갈색으로 변합니다. 강산성으로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빈혈과 만성습진 등에 좋습니다.

철천(합철천) (鉄泉(含鉄泉))

원천은 투명하지만 공기로 인해 갈색으로 산화하여 타율이 붉게 변하곤 합니다. 금속의 맛이 나기도 하며, 류머티스, 갱년기 장애, 빈혈, 만성습진 등에 좋습니다.

산성천(酸性泉)

무색투명 또는 옅은 황갈색으로 산미와 취기가 강한 온천입니다. 화산지대에 많은 온천성분으로 다량의 수소 이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살균력이 강해 습진 등에 효능이 있지만 피부가 약한 분은 입욕 후 담수로 씻어 주십시오.

중조천(탄산수소염천) (重曹泉(炭酸水素塩泉))

무색투명의 온천입니다. 중조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주고 분비물을 유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비누로 씻은 것처럼 피부가 매끈해서 '미인탕'이라고도 불립니다.

홋카이도 유산 도카치가와(十勝川) 온천

일반 광물성 온천에 비해 식물성 온천인 모르(Moor) 온천은 일본에서도 희소성 높은 온천 자원으로, 히다카 산맥을 바라보는 도카치 평야에서 솟아오르는 도카치가와 온천은 고대 식물이 퇴적된 아탄(亞炭)층에서 용출하는 온천수입니다. 흑갈색의 온천수에는 식물성 모르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뛰어납니다.

도카치가와 온천이 선사하는 매끄러운 피부와 아름다움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산으로 2004년 홋카이도 유산으로 선정하여 소중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비히로 관광 컨벤션 협회: [www.obikan.jp](http://www.obikan.jp) (한국어)



北海道遺産 Hokkaido Heritage

파도소리 들리는 유노카와(湯の川) 온천

세계 3대 야경 중의 하나로 유명한 역사와 로망의 도시 하코다테(函館). 그 곳에 위치하는 유노카와 온천은 약 360년의 역사를 가진 온천입니다. 사계절 내내 드넓게 펼쳐지는 쓰가루(津軽) 해협을 바라보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유노카와 온천은 나트륨, 칼슘염화물천(식염천)으로 원천수 온도는 65℃ 정도입니다. 무색투명의 온천수에서 온천욕을 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류마티즘이나 타박상, 부인병, 요통, 신경통, 위장병,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온천욕을 하면서 바라보는 오징어 잡이 배의 불빛은 항구 도시 하코다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많은 온천 애호가들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코다테 국제 관광 컨벤션 협회: [www.hakodate-kankou.com](http://www.hakodate-kankou.com)



하코다테의 야경



유노카와 온천

아이누 문화가 숨쉬는 아칸코(阿寒湖) 온천



겨울의 아칸코 호수

천연기념물인 마리오(녹조류의 하나로 공모양의 해초)가 생식하고 있기로 유명한 아칸코 호수에 자리한 이 온천은 원주민 아이누족도 예로부터 이용해온 천연 온천입니다. 온천 속소가 늘어진 거리에는 아이누의 생활이나 문화를 보여주는 '아이누 코탄(마을)'이 있어, 온천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생하는 아이누 문화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칸 관광협회: [www.lake-akan.com](http://www.lake-akan.com)

삿포로 근교 죠잔케이(定山溪) 온천

죠잔케이 온천은 삿포로 근교에 위치하며, 계절 주위의 계절마다 변화무쌍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일년 내내 일본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스키장도 있어 단기간에 홋카이도를 느끼기에 좋습니다.

\* 기타 홋카이도 온천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온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보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